

도시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공공사인 디자인 연구 -남포동 일대를 중심으로-

A Study on Public Sign System to Promote a City Brand Image -Focused on Nampo-Dong Region-

오수민, 김복경*

신라대학교, 신라대학교*

Oh soo-min, Kim bok-kyong*

Silla Univ., Silla Univ.*

요약

공공디자인 중 하나인 공공사인은 방문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인지시킴은 물론 볼 거리를 제공해야 하며, 더 나아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이 논문은 공공사인에 필요한 이론적 개념에 대해 정리하고, 해외연구를 통해 부산시 중구 남포동 일대의 사인현황의 실태에 대해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각광받고 있는 관광지인 부산 중구 남포동 일대는 복잡하고 노후된 사인 등으로 인해 방문객과 관광객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공공사인 디자인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전달의 요소를 개선시키고, 지역 내의 관광특징을 상징화하는 공공사인 디자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남포동은 자갈치시장과 국제시장이 있는 대표적 옛 도심으로, 일반인들에게 '부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가장 잘 부합하는 지역이다. 현대와 과거가 길 하나 차이로 적절히 어우러진 이색 상권인 남포동 일대는, 지역적 특색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최고의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개념에 대해 정리하고, 해외연구 및 현지를 답사하여 촬영한 사진 자료를 통해, 사인현황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공공사인의 개념 및 목적

공공사인 디자인이란, 크게 보면 물건이 아닌 정보 그 자체를 디자인하는 것으로, 상업성이 배제된 공공의 이익만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각적 정보제공과 행동유도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공공사인의 종류

사인의 범주는 사인이 가진 전달기능에 따라 안내, 기명, 규제, 유도, 설명, 장식의 총 6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 1) 안내사인 : 사물의 위치와 상호 관계의 전체를 나타내어 이용자가 행동을 선택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인을 말하며, 이해하기 쉽도록 도형화하는 등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 2) 기명사인 : 사물의 명칭을 나타내어 다른 것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하며,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거나 쉽게 기억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표시내용으로는 지명, 터널명, 교차점명 등이며, 표시물로서는 간판, 벽면사인 등이 있다.
- 3) 규제사인 : 규정된 지침과 금지된 사항, 위험요소를 알리는 일종의 안내사인으로, 통제표시, 비상탈출구 안내 등이다.
- 4) 유도사인 : 방향지시 도구로서 공항, 병원, 등의 복합 공공장소에서 사용자들에게 안전하고 능률적으로 목표 표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사인으로, 보통 방향지시를 위한 화살표를 포함한다.
- 5) 설명사인 : 특정 시설에 대한 접수, 이용방법, 절차안내 등 많은 양의 상세한 설명을 사용자에게 전달할 때 사용되는 일반적 공지사항에 관한 사인이다.
- 6) 장식사인 : 건물의 외관이나 주의환경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인으로, 배너, 깃발, 울타리, 기념명판 등이 해당된다.[1]

3. 공공사인의 구성요소

사인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표시하는가 하는 정보내용이다. 레이아웃과 디자인이 잘 되어 있더라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면 존재의 가치는 없어진다. 따라서 문자나 픽토그램, 도표 등 그래픽 요소를 레이아웃 할 경우 시인성과 관독성에 유의하여야 하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픽토그램이 가장 대표적이다. 공공사인의 구성요소로는 총 7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 1) 문자 : 문자는 서체, 폰트, 자간, 행간 크기의 비례 등

에 의해 가시성, 가독성, 주목성, 시인성이 결정된다. 환경의 조건과 그것을 보는 인간의 생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서체를 구성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는 관광객의 정보습득을 고려한 외래어 표기를 필요로 한다.

- 2) 기호 및 픽토그램 : 문화, 언어,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림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시나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 3) 레이아웃 :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가독성, 심미성, 비례성 등을 통해 전달방법에 있어 시설물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4) 색채 : 도시공간의 특성과 인간을 고려하는 색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주변의 색채들과의 조화성, 식별성, 독창성, 연상성 등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공간 안에 균형 있게 배열하는 것이 중요하다.
- 5) 형태 : 사인의 형태는 건물의 형태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비례형을 선택하여, 통일성과 다양성을 부여해야 하며, 윤곽의 형태와 내부요소, 구조요소들이 조화롭게 결합될 수 있어야 한다.
- 6) 조명 : 조명의 기본적인 기능은 어둠을 밝게 비추어 야간에도 대상이 지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빛을 이용한 공간연출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 도시의 중요한 조형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형태나 배치가 도시의 성격과 표정에 크게 영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방수나 보수시의 편리성, 강도성 등을 고려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 7) 위치 : 사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인물의 시각적 노출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여 설치 및 배치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2]

Ⅲ. 공공사인 해외사례 연구

1. 해외사례 현황분석

부산 중구 남포동과 지역적 특색이 비슷한 곳으로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으며 항구도시인 일본의 요코하마와 고베, 영국의 브리스톨을 사례로 조사 및 분석해 보았다.

- 1) 일본의 요코하마와 고베 : 요코하마는 도시 규모가 점점 확장되고 국제화 도시를 지향하면서 도시를 안내하는 공공사인의 개선이 필요했다. 따라서 요코하마는 간나이 지역을 중심으로 시 전체의 공공사인을 외국인 관광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과 외국어를 병기하여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발하였다. 또한 바다와 항구를 디자인 모티브로 채택한 공공사인에서도 요코하마의 정체성을 부여했다.[3] 고베는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간사이 지역으로 국제 관광도시로서의 공공디자인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다.
- 2) 영국 브리스톨 : 브리스톨 시는 '브리스톨 해독 가능한 도시(BLC : Bristol Legible City)'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브리스톨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기 위해, 서체는 가독성을 가장 우선시하여 정보 전달 효과를 높이려고 하였으며, 메인 색상으로는 바닷가 항구도시인 브리스톨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파란색이 선정되었지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색상팔레트를 적용하여 국제적으로도 인식될 수 있는 아이콘과 심볼을 디자인하였다. 또한 기존의 반복되거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사인들은 철거하고, 각기 개별적으로 설치된 사

인들을 통합하였으며, 사람들의 이동구간 내의 전략적 포인트에 설치하여, 길을 찾던 사람들이 적당한 타이밍에 정확한 방향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4]

Ⅳ. 남포동 일대 공공사인 현황분석

1. 지역적, 문화적 특성

최근 영화 '국제시장'의 배경으로 더욱 유명해진, 국제시장은 광복 및 6.25전쟁 당시 외국에서 귀국한 동포들과 피란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부산 중구는, 부산의 역사를 대표하는 곳으로 내국인뿐 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단연 최고의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남포동은 자갈치시장을 시작으로 BIFF거리, 패션문화거리, 아리랑거리, 먹자골목 등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 공공사인 현황분석

- 1) 디자인 아이덴티티 : 가장 큰 문제점은 남포동 일대만의 디자인 컨셉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사인시스템 및 스트리트 퍼니처 등이 제 각각의 디자인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산의 역사성과 중구의 지역적 특성이 과거와 현재가 조화된 공공사인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
- 2) 문자 및 기호 : 국내 및 외국인 관광객들을 배려한 혼용 표기는 좋으나, 일관성 없는 표기로 인해 오히려 복잡하게 느껴진다. 따라서 문자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국내 방문자들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자와 그림(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픽토그램)이 병기된 사인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
- 3) 형태 및 레이아웃 : 노후된 도시환경 속 공공사인의 형태와 내용들은 일관성 및 통일성이 부족하여 방문자들에게 오히려 혼동을 주고 있어, 재생을 고려한 공공사인 디자인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Ⅴ. 결론

오늘날 거리의 이미지 중 꽃이라 할 수 있는 '사인'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에서 더 확대되어 이미지의 고부가 가치를 부여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산 중구 남포동 일대는 현란한 광고물들과 찾아보기 힘든 사인들로 인해 방문객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산 중구는 지역의 특성상 국내 방문객들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배려한 사인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산의 역사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남포동만의 아이덴티티를 고려한 공공사인 디자인을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 참고 문헌 ■

- [1] 유혜진, "도시이미지의 정체성확립을 위한 사인시스템에 관한 연구", p.13, 2010.
- [2] 이정현, "정보 시각화의 그래픽 요소를 통한 테마파크 사인 시스템 디자인 사례 연구", p.34, 2009.
- [3] <http://blog.naver.com/visongkr/80114697566>, 공공디자인 연구소 소장, 송주철, "걸어 온 길"
- [4] 중소도시의 아이덴티티와 공공 디자인 : Bristol Legible City, www.designdb.com.